2024년 / 1월 1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1월 9일(화): 사무국 주간회의

○ 1월 10일(수): 사무국 2024년 사업계획 수립 회의

■ 연구원 소식

2024년 달력 발송

우리 연구원에서 제작한 2024년 달력이 회원 분들의 댁이나 직장으로 발송되고있습니다. 연구원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인편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2024년 달력을 받지 못한 회원분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재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달력이 더 필요하신 분께는 추가로 발송해 드릴 예정이오니 편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경기평화누리길 제4구간 - 2

유영봉(연구원 모악회 회장 / 前 전주대학교 교수)

일본은 중일전쟁에 이어 태평양전쟁을 벌이면서, 조선 전역을 급속도로 군사기지화하였다. 미군이 상륙할 확률 높은 제주도 곳곳을 요새로 만들고, 가덕도와 지심도를 비롯한 남해안의 섬 곳곳에 연달아 포대를 구축하였다. 여수와 목포에도 대공포대와 해안동굴진지를 만들어놓았다.

그러나 광복 후 이런 시설들은 하나둘씩 사라지는데, 특히 서울은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심하게 파괴되었다. 아울러 재개발과 재건축의 여파로 그 아픈 역사의 흔적들은 더욱 빨리 자취를 감추었다.

물가에 버드나무가 연두로 늘어졌다. 건너편의 방화동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곳이 부디 수원성水原城은 아닐지라도, 방화수류傍花隨柳란 말이 절로 떠오르는 봄날이다. 목련이 눈부시고, 벚꽃이 곱다. 민들레와 제비꽃이 땅바닥에 깔렸다.

이번에도 유엔피스코 회원들이 우리와 함께 푸른 물로 흘렀다. 그 흐름은 장항동으로 꺾어 들어 일산의 호수공원에 잠시 고였다. 유엔피스코 회원들이 평화를 기원하는 연을 날렸다. 생명・생태・평화를 외치는 대원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호수공원을 가득 채웠다.

대원들이 시원한 나무 그늘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한강과 행주대첩'이란 주제로 20분가량 강의를 진행했다. 모두가 진지한 눈빛이었다. 봄날이 환했다.

버스를 타고 자유로를 따라 돌아오는 길에 116초소가 있던 자리를 가늠해 보았다. 장월교차로 인근이니, 황중해 일병과 김범규 이병 두 병사가 1980년 3월 23일에 무장 공비 세 명을 사살한 곳이다. 그리고 1년 뒤 우리 소대가 2,172m에 달하는 그 지역을 책임진 바 있다. 그때의 일이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신병 하나가 전입을 왔다. 그가 부른 이 노래, 산울림의 〈청춘〉이었다. 얼마 후 나는 소대원들에게 '소대장 금지곡 1호'라는 엄명을 내렸다. 마치 이 노래가 〈히브리 포로들의 합창〉으로, 한 편의 장송곡으로 내 귀에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마치 군대 생활이 싫어서 부르는 시위 조의 노래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당시 국방색 군복을 입었던 20대 초반의 소대원 30여 명이 떼 지어 해바라기하다가, 남성들 특유의 저음으로 이 노래를 합창하면 음울한 분위기는 절로 조성되었다. 자포자기에서 오는 한탄과 무력감이 부지불식간에 떠도는 듯했다. 그때 그 모습이 참말로 보기 싫었다.

물론 이 노래는 뒷날 내게서 다시 새롭게 평가되었다. 실험성 강한 김창완의 한 걸음 앞선 음악 세계가 펼쳐진 명곡이라고. 그러나 푸른 제복을 입던 유예된 청춘의 한 시절에는 이 노래가 분명 그렇게 다가왔다. 시기를 잘못 만난 탓이었다.

그때는 참으로 푸르고 푸른 시절이었다. 황동규 시인이 〈태평가太平歌〉를 부른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말을 들어 보니
우리는 약소민족이라드군
낮에도 문 잠그고 연탄불을 쬐고
유신안약有信眼藥을 넣고
에세이를 읽는다드군

몸 한구석에 감출 수 없는 고민을 지니고
병장 이하의 계급으로 돌아다녀 보라
김해에서 화천까지
방한복防寒服 외피外皮에 수통을 달고
도처철조망到處鐵條網
개유검문소皆有檢問所
그건 난해한 사랑이다
난해한 사랑이다
전피수갑全皮手匣 낀 손을 내밀면
언제부터인가
눈보다 더 차가운 눈이 내리고 있다"